

2013 지구촌 기상도

日 극우 아베정권 등장... 동북아 정세 격랑

2013년을 맞은 지구촌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올해도 지구촌을 덮칠 가능성이 큰데 한·중·일 지도자의 교체에 따른 동북아 정세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1년 '재스민 혁명'으로 '아랍의 봄'을 맞은 여러 중동국가들이 불안한 정국을 이어가면서 중동의 불안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중·일 지도자 교체... 동북아 분쟁 불씨?

한·중·일 세 나라 지도부가 동시에 교체되면서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의 아베정권 등장으로 인해 동북아의 외교적 갈등과 함께 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일본의 보수적인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동북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 일본 관료와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특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평화헌법(제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수정 등을 시사함에 따라 주변국과의 긴장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시대의 한중관계는 실질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지도자 시대 주목

대한민국이 현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가운데 강력한 지도력을 자랑하는 세계 여성지도자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한 해다.

8년째 독일을 통치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그녀는 유로존 경제위기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철의 여인'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할 유로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낼지 주목된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

세프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의 지도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호소력 있는 언변과 카리스마로 유명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부인으로, 세계 최초의 직선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밖에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전임 남성인 IMF 집행이사진을 이끄는 대표적인 여성주자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가 유력 여성 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지속 전망

유럽발 경제위기가 올해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유로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제특이 올해 세계 경제의 3가지 악재로 꼽히고 있다.

유엔은 '2013년 세계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2.4%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유럽은 '부채 악순환'에 지속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 충격으로 성장이 '계속 미미해'할 것으로 관측했으며, 미국은 재정 절벽을 풀지 못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013~2014년에 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새해 성장률은 1.7%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

다. 중국도 올해는 고성장 시대에서 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성장 방식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고성장에 따른 소득격차 등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저성장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신흥국가의 경우 금리 인하 등의 금융완화정책이 내수를 진작시켜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유럽의 재정위기 탈출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화약고' 중동... 여전히 불안

아랍 국가의 민주화 열망에 불을 지른 '재스민 혁명'은 이슬람 세력의 급부상으로 험난한 정세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의 교전이 휴전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스라엘은 보복조치로 동 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산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신경전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양측의 평화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올해도 이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란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동의 또 다른 이슈는 시리아 사태가 끝날지 여부다. 지난 2011년 중동과 북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랍의 봄'을 맞이했지만, 시리아는 예외다. 2년 가까운 내전으로 4만 명 넘게 사망한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특히 인근 국가로 피난한 수 십만 명의 시리아 난민도 국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시리아 사태 개입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시리아 사태가 올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리비아와 예멘도 지난해 '아랍의 봄' 여파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슬람 주의자의 급부상과 무장 단체의 세력 확장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진화 전쟁

언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IT시장의 발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장점유율이 미비했던 태블릿 P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트북의 '재창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텔의 2013년 시장 전망에 따르면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더 많은 울트라북이 출시돼 윈도우 8의 터치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키보드와 태블릿이 결합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블 형태의 울트라북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강화된 성능과 이동성, 음

성인식이나 제스처, 각종 센서 등이 적극적으로 접목돼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노트북 등장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IT시장은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의해 데이터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며, 이를 활용한 여러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터치·무선 충전·음성·얼굴 인식 등 더 다양한 컴퓨팅 경험이 IT 시장에 접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시장의 확장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지원 장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게임 업계에도 터치와 음성, 얼굴인식 등이 접목된 게임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당선인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총서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한해도 희망차고 새로운 한해가 되십시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일동

대표전화 062\_523\_6028



시리아 내전 피해